

연구논문

사이보그 앨리스를 성구분하기: 〈그녀〉와 〈루시〉의 포스트휴먼 젠더 정치에 대한 라캉적 주해

김소연*

〈국문초록〉

성차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근본적 한계는 이원론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자연/문화, 인간/기계, 감성/이성, 동성애/이성애 등으로 증식해가는 이항대립은 성차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는다. 이 글은 젠더 이후 세계를 상상했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이 이러한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노력임에, 또 라캉의 여성성 이론과 논리적으로 상동적임에 주목한다. 라캉에게 여자는 보편성과 예외의 이항대립적 구조를 넘어서는 비전체적 존재였다. 이 글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와 라캉의 여성성에 대한 사유를 교차시켜 〈그녀〉와 〈루시〉를 비평한다. 그리하여 여주인공들의 사라짐은 상징계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상징계를 무한히 탈구시킬 실재의 위상을 띠게 되는 것이라고, 위협적이고 불길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독해한다.

주제어: 다나 해러웨이, 자크 라캉, 포스트휴머니즘, 여성성, 성구분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강사(soh-youn@hanmail.net)

© 20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들어가며: 경계와 네트워크의 새로운 감각

여자라는 것, 여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지금은 ‘여협’이라는 신조어가 어느 새 일상어가 되어 있는 시대다. 모든 혐오는 혐오하는 자와 혐오를 혐오하는 자 사이에 걸쳐 있다. 처음 이 둘 사이의 선택은 쉽다. 하지만 혐오를 혐오하는 자는 혐오하기와 혐오를 혐오하기라는 갈림길과 또 다시 마주친다. 이번 선택은 어렵다. 전자는 자기혐오라는 부작용을, 후자는 자기소외라는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의 선택이다. 여자라는 것, 여자로서 산다는 것이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의 선택이 될 수는 없을까?

제인 프리드먼(Jane Friedman)은 페미니즘의 역사가 평등의 추구하고 차이의 추구 사이에서 진자운동해왔다고 요약한다(프리드먼, 2002: 29). 성차의 극복을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똑같아지도록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논쟁이 페미니즘의 역사를 갈랐다는 것이다. 이 논쟁은 기회의 평등을 추구할 것인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것인지, 또 자연적,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결과로서의 차이를 인정할 것인지를 선택 사이에서 다시금 분열한다. 이것이 바로 성별과 젠더,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둘러싼 페미니즘 논쟁의 직조가 결코 간단치 않은 이유다.

그런데 이처럼 복잡한 직조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은 여전히 씨줄과 날줄의 교차라는 공통의 원리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으로 이 원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이론들에서 여자/남자, 백인/유색인, 자연/문화, 인간/동물, 인간/기계, 감성/이성, 사적/공적, 동성애/이성애, 가정/사회 등으로 무한히 증식하는 이항대립의 쌍들은 성차의 원인이자 효과로서 나열된다. 하나의 항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상대 항과의

관계를 전제해야 하는 이러한 이항대립의 의존적 구조는 애석하게도 성차 혹은 젠더의 개념과 범주, 나아가 그로부터의 해방까지를 이원론적 상상 안에 묶어놓는다. 이를테면 여혐 반대가 남혐으로 직진하는 현상은 그 애석한 부작용일 수 있다. 물론 모든 페미니즘 이론을 이원론의 소산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다원론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경계성의 선택을 지향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모든 페미니즘 이론들과 이원론의 관계를 세세히 검증하는 것은 이 글과 필자의 역량을 벗어난다. 다만 이 글을 열기 위해 필요했던 거친 기각의 제스처가 이원론의 경계 너머로 뛰어오르려는 발 구르기 정도로 여겨지면 좋겠다.

이 글이 이원론의 경계 너머에서, 심지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경계 너머에서 만나고자 하는 인물은 도나 해러웨이(Donna Haraway)와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여성성과 라캉의 비전체(not-all)로서의 여성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성차의 문제에 접근할 새로운 길을 가늠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타진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 <그녀>(Her, 2013)와 <루시>(Lucy, 2014)가 주조해낸 포스트휴머니티, 특히 포스트바디에 대한 상상이 어떠한 젠더 정치적 관점에서 읽힐 수 있는지, 또 라캉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그러한 독해가 어떻게 대리보충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자 한다.

2. 이원론의 미궁 밖으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

해러웨이가 사이보그론을 발표한 것은 1985년이였다. 「사이보그 선언: 과학, 테크놀로지, 그리고 1980년대의 사회주의 페미니즘」(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the 1980s)이라

는 제목으로 『사회주의 리뷰』(*Socialist Review*)에 실린 이 글¹⁾은 대단한 환영과 지지를 받았다. 주디 와이즈먼(Judy Wajcman)은 그 이유를 해러웨이의 이론이 “행복하면서도 계시적”(와이즈먼, 2009: 128)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사회주의와 페미니즘의 미래 전망은 과학과의 관계에서나 정치적 현실에서나 암울한 것이었다. “노동의 컴퓨터화가 노동자의 탈숙련화, 건강 위협, 대량 실업의 확산을 초래할 것이고, 체외수정의 발견, 난자 기증, 대리 임신이 보수주의적 가정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견”이 우세했으며, 레이건주의와 대처주의가 복지국가를 붕괴시키고 노동운동을 공격하는 가운데 현실 사회주의 실험이 끝나가면서 자본주의의 완벽한 승리가 예감되고 있었다(와이즈먼, 2009: 128). 그러니 실의에 찬 사회주의/페미니즘 진영에게 과학기술의 발전이 여성의 해방, 나아가 인류의 해방을 위한 자원이 되리라는 해러웨이의 유토피아적 낙관론은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요컨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의 담론사적 의의는 전격적인 관점의 전환을 불러일으킨 데 있었다. 더욱이 그러한 관점의 전환은 단지 테크노사이언스의 해방적 잠재력에 대한 긍정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더 핵심적인 전환은 사이보그 존재론을 성차와 젠더에 관한 급진적 관점과 결합시켰다는 점과 연결되어 있었다. 「사이보그 선언문」보다도 10여 년 뒤의 저술에서조차도 사이보그를 남근적 힘의 현현이라고 규정할(스프링거, 1998: 144) 만큼 과학기술의 소산을 남성적인 것과 결부시키는 관점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해러웨이는 과감히 사이보그를 여성성의 편에 위치시켰다. 물론 단지 이러한 전도를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글에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다. 해러웨이의

1) 이 선언문은 해러웨이의 저서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1991)의 8장으로 실려 있다. 저서에서는 처음 발표되었던 제목의 '80년대'가 '20세기 후반'으로 바뀌었다.

사이보그 여성성이 고무한 더욱 근원적인 변화는 여성성 자체가 개념적으로 남성/여성의 이분법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새로운 개념적, 실천적 위상을 갖게 된 데 있었다.

해러웨이가 사이보그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존재들은 상당히 다채롭다. 씨앗, 칩, 유인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폭탄, 태아, 유색인종, 두뇌, 생태계, 흡혈귀, 온코마우스²⁾ 등이 모두 사이보그의 동반종으로 분류된다. 애초에 사이보그란 만프레드 클라인스(Manfred Clynes)와 네이션 클라인(Nathan Kline)이 『우주비행학(Astronautic)』(1960)에서 외계 환경에서 살아남을 인간-기계 잡종을 가리키기 위해 만든 ‘인공두뇌 생체(cybernetic organism)’의 줄임말이다(와이즈먼, 2009: 138). 그러므로 해러웨이는 사이보그라는 존재론적 범주를 전유하면서 그 잡종성을 극대화한 셈이다. 클라인스 등이 고안한 사이보그는 몸은 기계지만 정신은 과학 연구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코기토적 휴머니티의 틀 안에 있었고, 사이보그가 된다고 해서 섹슈얼리티가 바뀔 가능성은 없었다. 하지만 앞에서 나열한 동반종들이 보여주듯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는 원천적으로 탈인간적 혹은 비인간적인 것이었으며 또한 탈섹스적임은 물론 탈젠더적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설명은 이상하다. 해러웨이는 “사이보그 앨리스”(해러웨이, 2002: 275)라는 표현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사이보그의 여성성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사이보그가 섹스 및 젠더 구분과 무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금부터 그의 논리를 자세히 따라가보자.

해러웨이는 주디스 버틀러(Judith Burtler),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 등과 함께 3세대 페미니스트, 즉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 그룹에 속한다.³⁾ 따라서 그는 섹스와 젠더를 이항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반대하면서 생물학적 섹스 또한 자연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2) 하버드대에서 암 유전자를 실험하기 위해 만든 유전자 변형 쥐의 명칭.

3) 이러한 분류는 임옥희의 견해를 따랐다(임옥희, 2005).

구성된다고 보는 입장을 공유한다. 그러나 버틀러가 섹스는 언제나 이미 젠더화되어 있음을 논증하면서 자연화된 섹스 개념을 해체하는 데 치중함과 달리, 해러웨이의 주된 관심은 사회적 범주로서의 젠더 개념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는 젠더란 성차를 당연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발달한 개념이라면서 일단 긍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젠더 없는 세계”(해러웨이, 2002: 268)를 상상한다. 아마도 해러웨이가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이 그 경위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양에서 개인이 된다는 것은 자아의 소유권을 갖는 것인데 젠더 정체성 또한 그러한 소유에 해당한다(243). 둘째, 섹스/젠더 체계의 욕망의 구조는 여성 억압에 기초한 이성을 의무적으로 부과한다(246). 셋째, 1970-80년대에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젠더 범주를 설명할 때 그 이론적 핵심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대상화, 교환, 전유 속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주 설정은 백인 페미니스트들이 인종/젠더나 인종/섹스 체계를, 그리고 교차-인종적 ‘자매관계’에 대한 장벽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248).⁴⁾ 넷째, 유사한 맥락에서 젠더 범주는 유럽-아메리카 중심적이었고 따라서 여타의 타자들을 은폐하거나 종속시켰다(257). 다섯째, 페미니즘적 젠더 이론들은 일관된 주체란 환상일 뿐이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재구성된다는 통찰을 따라 출현했다. 하지만 벨 훅스(Bell Hooks)의 저술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Ain't I a Woman)』의 제목이 드러내듯 젠더 정치의 핵심에는 ‘여자’라는 정체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체한다는 아이러니가 놓여 있다(263). 여섯째, 이러한 아이러니는 젠더라는 사회적 범주가 정치적, 설명적 힘을 갖기 위해 섹스, 살, 몸, 생물학, 인종, 자연 같은 범주들을 역사화하는 데 의존하는 데서도 작용한다. 그러한 역사화의 방식은 섹스/젠더 체계라는 개념을 낳은 보편화시키

4) 번역서의 “성/젠더”는 ‘인종/젠더’의 오역이므로 수정했다.

는 이항대립이 폭발하여, 분절되고 차별화되어 있고 설명 가능하고 위치설정되어 있으며 결과론적인 체현(embodiment) 이론들이 되는 방식과도 같다(264). 이 체현 이론들은 더 이상 자연을 문화의 원천으로, 섹스를 젠더의 원천으로 상상하거나 제정하지 않기에 기존 젠더 정치의 논리를 비껴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젠더 정치의 아이러니를 인식하게 된 페미니스트에게 어떠한 대안이 가능한가? 일단 해러웨이는 체현의 이론들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면서 그 자리가 “이질적, 다문화적, ‘서구’(유색인, 백인,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연안)의 페미니즘적 젠더 이론들의 **유토피아적 교차**를 위한”(264) 지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젠더 이론을 고수하겠다는 뜻일까? 그는 ‘젠더’라는 단어를 “모순적이고 적대적이며 결실이 많고 계승된 이항적 **이원론들과의 짝이 맞지 않는 동기관계(siblingship)** 속에서 부화된 것”(264; 필자의 강조 및 번역 수정)이라고 수식함으로써 자신이 다루려는 젠더와 기존 젠더 개념의 차별성을 분명히 한다. 해러웨이의 젠더는 마치 남근중심주의의 말이 담긴 동지 속에 침투한 불사조의 배아와도 같은 것이다. 남근중심주의의 말에서 나온 “역사의 병아리들”이 “문자적으로-사고하는(literal-minded)” 데 반해 이 불사조는 “전복된 세계의 모든 말들(tongues)”을 하게 되리라고 그는 확신한다(264; 필자의 번역 수정).

이처럼 해러웨이는 기존 젠더 정치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젠더 범주를 다분히 인류학적인 색채를 띠는 다원론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젠더 이론이 체현 이론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긍정했다. 이러한 관점의 이동을 젠더 개념의 확장이나 재구성으로 볼지, 젠더 개념의 포기나 기각으로 볼지는 다소 애매하다. 그래서 해러웨이 또한 젠더 범주의 긍정에서 시작된 논의가 젠더 범주의 부정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해체적 사태를 ‘아이러니하다’고 기술했을 것이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론이 페미니즘, 사회주의, 유물론과 맺는 관계 속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자신이 페미니즘, 사회주의, 유물론과 맺는 충성스런 관계가 숭배와 동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성모독적인 것임을 천명하면서 사이보그라는 새로운 존재론적 범주의 제출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사이보그 존재론을 써나가기 위해 해러웨이는 먼저 인류가 생산, 생식, 상상력의 영역에서의 “경계 전쟁의 이해관계”(268) 속에서 살아왔음을 지적한다. 경계들은 “자아/타자, 정신/몸, 문화/자연, 남성/여성, 문명화된/원시적인, 실제/외양, 전체/부분, 행위자/자원, 제조자/제조물, 능동적/수동적, 옳은/그른, 진리/환상, 총체적/부분적, 신/인간”(318) 등의 이원론적 구조 속에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하이테크 문화는 이원성의 강고한 틀에 도전한다. “코드화 실천으로 용해되는 기계”(318)에서는 몸과 정신, 기술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의 구분이 분명치 않다. 총체성을 구성하는 이원성의 경계가 해체되는 상황은 “언어와 젠더를 발생시키도록 상상된 힘의 구조”를, 나아가 “서양’의 정체성, 자연과 문화, 거울과 눈, 노예와 주인, 몸과 정신 등의 재생산 구조와 모드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전복시킨다(315-316). 해러웨이는 오늘날이 “토대와 상부구조, 공과 사, 물질적인 것과 관념적인 것 등의 경계-유지의 이미지들”(295)이 가장 약해진 시대라면서 “사이보그 정치”(315), “사이보그 젠더”(324)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것은 곧 “젠더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유토피아적 전통 속에서 사회주의-페미니즘 문화와 이론에 기여하려는 노력”(268)이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는 인간과 기계의 복합체, 생물과 디지털 정보기술의 혼성체(hybrid entity)⁵⁾인 동시에 페미니즘적 주체성의 유토피아적, 신화적 성격을 함축하는 담론적 구성체다. 이처럼 사이보그를 기술적 대상으로서의 명사적 범주에 머물게 하지 않고 페미니즘적 주체성의 ‘체현’ 자

5) 혼성체란 완전히 유기적인 것도, 완전히 기계적인 것도 아닌 존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앤 마리 발사모의 것이다(2012: 30).

체를 은유하는 동사적 개념으로 전유해버린 점은 그의 사이보그론을 어떤 포스트휴먼 이론보다도 특별하게 만든다. 그의 사이보그는 “목적론의 전복을 낳을 수 있는 사생아”(269)이고, 동물 및 기계와의 융합을 통해 “서양 로고스의 체현인 인간(Man)이 되지 않는 법”(309)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존재이며, 과학 기반 산업이 선호하는 노동력으로서의 “유색 여성들”(312)이고, 기원적 언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키메라 같은 괴물”이며 “소음”이고 “오염”이다(315). 또 “젠더-이후 세계의 피조물”이자 “최종적인 아이러니”, “궁극적 자아”(269)라고 묘사될 수 있는 존재다.

지금까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이 토대와 상부구조의 경계를 허물고 남자(Man)와 여자(Woman)의 경계를 의문시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페미니즘을 재구축하고자 하는 아이러니적 노력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사이보그는 유물론과는 어떤 식으로 아이러니적 관계를 맺게 될까? 이제 사이보그 몸에 관한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해러웨이가 사이보그 선언문을 제출하기 10여 년 전인 1977년, 이합 핫산(Ihab Hassan)은 “인간의 욕망과 그 외적 재현들을 포함하는 인간의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재조망되어야만 한다”고, 그에 따라 “휴머니즘의 500년이 종말에 이르고 있으며 휴머니즘은 우리가 무력하게도 포스트휴머니즘이라 불러야만 하는 어떤 것으로 변형되고”(Hassan, 1977: 843)있다고 단언했다. 더불어 그는 포스트휴먼 문화로 가는 과정은 “생명의 탈물질화와 존재의 개념화”(835)에 주로 의존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보그 존재론은 이러한 포스트휴먼 존재론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 더욱이 정보가 가상현실을 구성하는 디지털 시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존재로서 사이보그는 피부를 통해 경계지어지는 몸이 아니라 정보가 여행하는 모든 외부 경로라는 의미에서의 몸을 갖고 있다(발사모, 2012: 30).

해러웨이 또한 “동물과 기계와의 합동적 혈연관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속적으로 부분적인 정체성과 모순적 입장을 두려워하지 않는”(276) 사이보

그 세계에서 사이보그 몸이 이러한 탈물질성 혹은 탈육체성과 결부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생체공학적 존재인 사이보그에게 몸은 자연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거점이 아니다. 더욱이 사이보그는 단일한 정체성을 추구하지도 않으므로 “개체적 실체”(319)로서의 몸의 지위는 의심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몸의 유기체성을 부정하게 되면 몸은 생식적 성의 도구로서의 기능과도 무관해진다. 이제 요구되는 것은 도롱뇽의 다리가 잘려나간 뒤 재생하는 것이 보여주듯, “재탄생(rebirth)이 아닌 재생(regeneration)”(324; 필자가 번역 수정)이다. 그리하여 사이보그의 몸은 괴물의 몸, 강력한 몸이 되며 동시에 젠더 없는 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이보그 몸이 물질성과 맺는 아이러니적 관계의 요체다. 탈물질화, 탈육체화의 양상이 더욱 강력한 물질성과 육체성을 보장하게 되는 아이러니 말이다.

3. 젠더에서 섹슈얼리티로: 라캉의 성구분 공식

지금까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존재론이 남자/여자의 경계를 내파시킴으로써 젠더 범주를 해체하고 여성성 개념을 (재)구성하는 아이러니적 전략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론은 슈나이더(J. Schneider)가 그랬듯이 20세기 후반부 세계 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나타난, “다중성, 이질성, 괴물성”(장정희, 2011: 377)에 대한 주목으로 읽히곤 한다. 이러한 관점은 사이보그 존재론의 목표와 의의를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부합하는 다문화와 다원주의에 대한 지지의 맥락에서 바라보게 한다. 사이보그 여성성의 논리적, 정치적 귀결로서 특히 유색인종 여성이 강조된다는 점은 이러한 관점에 설득력을 부여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해러웨이의 아이러니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독해해보고자 한다. 즉 그가 (여성/남성)

젠더를 해체함으로써 (사이보그) 젠더를 재구성하고자 했다고 볼 때, 혹시 두 젠더 개념 간의 아이러니적 거리를 정신분석적으로 해명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 그럼으로써 ‘해러웨이 안에 있는 해러웨이 이상의 것’에 접근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라캉의 여성성 개념을 이해한 다음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젠더’의 논리 구조와 비교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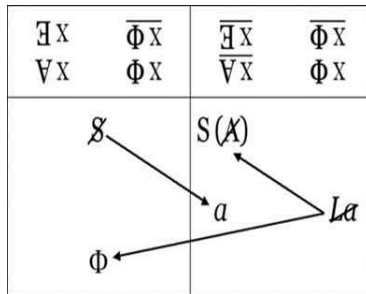
라캉에게는 젠더 이론이 없다. 대신 그에게는 성구분(sexuation) 이론이 있다. 라캉의 이론 체계에서도 여성성의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 그는 젠더 정치가 아니라 성구분의 윤리를 선택했을까? 라캉에게 성적 차이는 두 층위에서 구성된다. 첫째는 주로 부모와의 동일시에 따라 ‘자아’ 정체성을 구성할 때 작용하는 ‘상상적’ 층위다. 둘째는 ‘주체’의 무의식적 섹슈얼리티를 구성할 때 작용하는 ‘실재적’ 층위다. 첫째와 둘째 층위는 서로 연동하지 않으며 심각한 갈등 속에 놓이기도 한다. 라캉의 정신분석이 해명하려는 성적 차이는 둘째 층위와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태를 다루기 위해 성구분 이론이 고안되었다.

라캉에게 성차란 무의식적 섹슈얼리티의 차원과 연결된 것으로서 상징적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해부학적 실체, 사회문화적 정체성으로서의 여성/남성과는 아무런 인과연쇄도 없다. 즉 현실의 남자가 여성적 섹슈얼리티를 가질 수도 있고 현실의 여자가 남성적 섹슈얼리티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은 상호보충적인 것으로서든 상호배타적인 것으로서든 남성과 여성이 대칭관계를 이루며 하나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배격한다. 성차는 주체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남성다움이나 여성다움 같은 것으로서 상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각각 온전히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자기를 실현할 수 없게 만드는 내속적, 실재적 장애로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⁶⁾ 그러므로 남자가 남자로서, 여자가 여자로서 성적 차이를 상징화하고자 한다면 그녀는 상징적으로 번역될 수

없는 성차의 실재를 상실해야 한다. 이처럼 (실재적) 성차가 (상징적) 성차에 내속하면서 (상징적) 성차의 확립을 꾀하는 것인 한, 성차를 이원론적으로 기표화함으로써 상징계 안에 폐쇄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상징적) 성차의 확립을 위해 필연적인 (실재적) 성차의 상실, 라캉은 그것을 ‘상징적 거세’라고 부른다. 남녀 모두는 상징계로 들어가면서 무의식적 (성)충동의 상실에 직면한다. 성구분은 그러한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 남녀가 각각 (성)충동으로서의 섹슈얼리티와 맺게 되는 상이한 관계의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다. 라캉은 이를 아래 공식(formulas)으로 제시한다 (Lacan, 1998: 78).

〈도해 1〉 라캉의 성구분 공식



위 도해의 왼쪽 두 칸은 남성 편, 오른쪽 두 칸은 여성 편의 성구분 공식에 해당한다. 먼저 위쪽에 나오는 기호들의 의미부터 풀어보면, \mathcal{S} 는 존

6)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은 이런 맥락에서 주디스 버틀러(2008)의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의 관점을 비판한다. 버틀러는 젠더 정체성이 우연하고 사후적인 수행의 효과라고 주장하지만 지젝은 모든 수행적 형성으로서의 ‘정상적’ 성차가 실상 그 성차를 구성하는 트러블(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이자 그 트러블을 회피하거나 봉합하려는 시도일 따름이라고 반박한다. “젠더에는 언제나 트러블이 있다”는 것을 버틀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지젝, 2007: 249).

재를, 뒤집힌 A는 모든/임의를, \neg 는 부정을, X는 주체를, \emptyset 는 남근 기능 또는 거세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위 왼쪽의 남성편 공식을 풀어보면 “남근 기능에 종속되지 않은 하나의 X가 있다. 모든 X가 남근 기능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위 오른쪽의 여성편 공식을 풀어보면 “남근적 기능에 종속되지 않은 단 하나의 X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X가 남근 기능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구할 수 있다. 요컨대 남성편의 공식은 ‘남근 기능을 거부하는 어떤 x의 존재(예외, 아버지, S1)에 근거해서만 한 남자(아들, S2)의 전체는 남근 기능의 지배 아래로 들어감’을, 여성편의 공식은 ‘남근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는 예외로서의 여자는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여성의 전부가 남근 기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은 아님’을 함축한다.

한편 아래 칸에 나오는 기호들에서 δ 는 분열된 주체, \emptyset 는 욕망의 기표로서의 남근, $S(A)$ 는 대타자 안의 결여의 기표, a 는 욕망의 대상-원인으로서의 대상 a , L_a 는 여자는 존재하지 않음(혹은 비-전체로서의 여자)을 각각 의미한다. 화살표는 관계나 접근 방향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위의 도해를 들여다보자. 분열된 주체로서의 남자는 여성 편에 있는 그의 욕망의 대상-원인인 a 에 접근하고 있다. 비-전체로서의 여자는 남성 편에 있는 남근 기능과 관계하는 동시에 여성 편에 있는 대타자의 결여의 기표와도 관계하고 있다.

이러한 도해는 남성 섹슈얼리티와 여성 섹슈얼리티가 구성되는 방식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요컨대 남성은 자신의 결여를 가려줄 대상 a 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을 남근 기능이라는 보편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예외의 위치에 놓는 방식으로 거세에 대처하는 반면, 여성은 남근 기능의 보편성을 승인하면서도 동시에 대타자의 예외적 결여와 관계함으로써, 즉 자신의 전부가 남근 기능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게 하는 방식으로 거세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보편성과 예외는 합산되어 세계를 닫힌 전

체집합으로 만들 것이고, 후자의 경우 보편성에서 예외가 감산되어야 하므로 세계는 열린 무한집합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성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로서, 여성은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의 불가능성”으로서 정의되는 이유다(콥젝, 2005: 137).

이로부터 우리는 그간 페미니즘의 슬한 공격을 받았던 테제들, 즉 ‘남자는 남근을 갖고자 하고 여자는 남근이 되고자 한다’ 및 ‘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라캉에게 남근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누리던 완전한 만족감으로서의 향유(jouissance)의 기표다. 하지만 이 향유는 주체가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상실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에 남근은 결여의 기표이기도 하다. 주체는 존재의 결여를 가리기 위해 이런저런 가면을, 즉 남근의 유사물들을 다시 부착하지만 이는 주체와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채 “신체 없는 기관”이 될 뿐이다(지젝, 2006: 173). 반면 거세는 남근을 상실한 아이가 결여된 남근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상징적 위임들을 떠맡게 만든다는 점에서, 즉 기표의 연쇄 혹은 “증식 작업”(나시오, 2000: 273)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권력과 동의어다. 흔히 거세를 결여와, 남근을 권력과 동일시했던 페미니즘 진영의 오해를 벗어나 이처럼 라캉 본연의 이론적 기획을 재확인하면, 남근을 갖고자 대상 a에 대한 욕망의 약무한에 빠지게 되는 남자가 얼마나 자기기만적인지, 남근이 되고자 부단히 상징 질서를 탈구시키며 새로운 질서의 계기를 창조해내는 여자가 얼마나 자기갱신적인지를 알 수 있다.

여자는 왜 존재하지 않는가? 여성 주체성이란 그 어떤 기표로도 껴낼 수 없는, 오직 차이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여자(La Femme)와 주체(Sujet) 사이에는 “구조적 동일성”이 있다(셰르쥬, 2009: 455). 라캉이 “하나의 기표는 다른 기표를 위해 주체를 표상한다”(Lacan, 2006: 713)고 설명할 때의 주체는 스스로 기표화될 수는 없고 다만 다른 기표들에 의해 대리됨으로써만 드러날 수 있는 존재, 기표

들 ‘사이에’ 존재하기에 ‘말하는 것이 금지된’(inter-dite) 존재다. 그런 점에서 주체는 상징계 내의 차이 그 자체로서의 여자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다. 주판치치가 오늘날의 실천적 정언명령은 “남자들을 주체가 되게 하라!”라고 단언했을 때(주판치치, 2005: 225), 정확히 그는 존재하지 않는 여자의 궁극적 존재가치를 포착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 주체성에 대한 라캉의 정의는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여성성과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가? 해러웨이에 대한 라캉적 독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해러웨이가 폐쇄적 이원성의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아이러니’ 전략을 도입한다는 데 있다. 사이보그 여성성은 남성/여성의 폐쇄적인 이항대립 속에 있는 여성성과는 다르다. 즉 사이보그 여성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원론의 한계 속에 있는 여성성과의 사이에 아이러니적 거리를 도입해야 한다. 게다가 사이보그가 도입해야 하는 아이러니는 “최종적인 아이러니”(해러웨이, 2002: 269)다. 사이보그는 “어떠한 기원 이야기도 갖고 있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추상적 개인화에 대한 ‘서구의’ 증가하는 지배의 끔찍한 목시목적 목적(telos)”(269; 필자의 강조 및 번역 수정)이기도 하다. 그 목적이 끔찍한 이유는 개인성을 끝까지 추상화시킨 결과로서 나타난 사이보그 존재가 “모든 의존으로부터 마침내 풀려난 궁극적 자아, 우주공간 속의 인간”(269; 필자의 번역 수정)의 상태를 구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주공학적 은유를 과감히 정신분석적으로 전유한다면, 개인성(혹은 주체성)의 최종적 추상으로서의 사이보그는 지구를 벗어나 우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으로부터 풀려나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독법도 가능하다. 더욱이 그러한 추상화의 가능성을 해러웨이는 젠더 너머, 젠더 이후에 대한 상상 속에서 여성성에 할당한다. 그렇다면 이는 정확히 라캉이 주장하는 여성 편이 논리와 상동적이지 않은가.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여성성이 남성/여성의 이원성과의 아이러니적 거리 속에 있는

여성성으로서 이원론적 젠더 체계를 붕괴시키듯이 라캉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상징적) 성차에 기입되는 (실재적) 성차 그 자체로서, 상징화된 성차의 거짓된 유효성을 폭로하고 교란한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가 추상화된 개인의 궁극적 버전으로서 신화적인 남근적 어머니(이는 라캉에게 최초의 대타자)로부터 분리되듯이 라캉의 여성은 대타자 내부의 결여와 관계함으로써 대타자의 욕망으로부터의 분리를 성취한다. 또 해러웨이의 사이보그가 완전한 의사소통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을 정치적 과제로 삼듯이 라캉의 여성은 기표화될 수 없는 금지된 틈새의 위치를 고집한다.

해러웨이는 “나는 여신보다는 차라리 사이보그가 되겠다”(325)고 선언한다. 라캉은 보편성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예외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면서 근본적 변화를 차단하는 남자의 방식이 아니라 보편성 내부에서 보편성을 기능정지시키면서 무한한 변화를 도입하는 여자의 방식을 지지한다. 여신의 위치는 남자의 위치다. 『토템과 터부』의 나쁜 아버지처럼 예외적 위치에서 향유를 독점할 수 있는 위치다. 사이보그의 위치는 여자의 위치다. 존재의 영도의 위치에서 존재를 탈존(ex-ist)시키면서 “지구상에서의 통제 그리드의 최종적인 내부적 폭발”(276)을 초래하는 위치다. 해러웨이는 신도 죽었지만 여신도 죽었다고 선언한다(290). 또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생명공학의 정치로 인해 신도 인간도 다시 생기를 얻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니 요구되는 것은 사이보그가 되는 길뿐이다.⁷⁾ 마치 라캉에게 보편성을 따르는 길(신의 방식)도 예외로서의 자유를 추구하는 길(여신의 방식)도 아닌, 오직 보편성 내부의 집요한 부정성이 되는 길(사이보그의 아이러니적 방식)만이 ‘주체’를 실현하는 급진적인 길이듯이 말이다. 이 점이 바로 이원론의 미궁을 내파시키려는 해러웨이와 삼항조(triad)의 위상학을 개척하려는 라캉 사이에 연대가 가능한 이유다.

7) 그런 의미에서 “그(해러웨이)에게 몬스터/여신/사이보그는 같은 궤도에 있는 것”(임옥희, 2005: 434)이라고 보는 임옥희의 독해는 해러웨이의 논지를 오해하고 있다.

4. 사라지는 여자들: 〈그녀〉와 〈루시〉의 포스트휴먼 젠더 정치에 대한 정신분석적 독법

대중영화는 대중의 무의식이다. 대중영화는 당대인들을 지배하는 욕망과 불안과 환상의 거울이다. 그 중에서도 SF 영화는 그 거울을 유토피아적 혹은 디스토피아적 프레임에 맞춰 재단함으로써 대중적 무의식의 향방을 구획한다. 뉴 밀레니엄의 도래를 전후해서 미래 인류의 삶과 사회를 전망하는 SF 영화들이 다양한 하위 장르들을 자랑하며 세계 극장가를 누벼왔다. 최근 특히 약진하는 영화들은 각종 슈퍼히어로물이다. 그 어떤 남성보다도 강한 남성 영웅의 활약에 미래 인류의 안녕이 접수되고 있다. 그래서 〈그녀〉와 〈루시〉는 이채롭다. 무엇보다도 사이보그 여주인공의 특징이 여타 슈퍼히어로 여성 사이보그들과 확연히 구분되며 서사적으로도 틀에 박힌 해피 엔딩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이 영화들에는 자꾸 곱씹게 만드는 힘이 있다. 지금부터는 이 영화들이 선보인 여성 사이보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그 포스트휴먼 젠더 정치가 해러웨이와 라캉의 여성성/주체성 이론의 맥락에서 어떻게 독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문」이 지목했던 ‘사이보그’는 구체적인 지시 대상으로서의 포스트휴먼 존재들이었다기보다는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상상과 결합한 포괄적인 은유에 가까웠다. 그러나 선언문이 나온 후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현실 속의 사이보그적 존재들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졌다. 그에 부응하여, 사이보그를 정의하고 분류하는 기준도 상당히 복잡해졌다. 김선희는 인간과 기계의 결합체를 가리키는 고전적 사이보그와 인간이 컴퓨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정보를 교류하는 탈고전적 사이보그를 대별하고 탈고전적 사이보그를 다시 인간-사이보그, AI(인공지능)-사이보그, CA(cyber agent) 사이보그로 세분한다(김선희, 2004: 182). 이러한 범주화에서 핵심은 사이보그가 “물리공간

과 사이버공간의 교차점에 존재하는 주체”(179)라는 점이다. 따라서 김선희는 탈육체화된 가상 육체만을 갖는 사이버자아는 CA-사이보그가 될 수 없다고 못박는다(201).

그러나 이 글의 분석대상인 〈그녀〉와 〈루시〉는 이러한 범주 구분조차도 낡은 것으로 만드는 상상력의 소산이다. 〈그녀〉의 ‘그녀’인 사만다(Samantha)는 목소리만으로 출연하는 OA로 존재하고 〈루시〉의 루시는 결국 물리적 현전을 무화시킴으로써 비로소 자신만의 존재 양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이보그 캐릭터는 완전히 새롭다. 지금은 종의 개념을 유전자로 환원했던 유전공학의 문제설정을 넘어 종과 생명의 개념을 정보로 환원하는 사이버네틱스나 컴퓨터 정보기술의 시대고, 그에 따라 “인공지능 프로그램조차도 생명체로 간주”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김선희, 2012: 54-55). 어쩌면 해러웨이조차도 염두에 두지 못했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가 사이보그가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와 〈루시〉가 보여준 새로운 존재의 유형은 하이퍼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가상 주체”(이수자, 2004: 250)가 갈 수 있는 극단의 상태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영화들에서 볼 수 있었던 포스트휴먼 존재들은 대개 인간과 기계의 결합으로 탄생하는 보철(prosthesis)적 혼성체로서 “보철 충동”, “보철 상상력”(전혜숙, 2013: 256)의 자장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안경을 끼거나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을 때 이미 인간은 사실상 보철적 존재로서의 사이보그가 된 것이라는 맨프레드 클라인스(Manfred Clynes)의 주장(신명아, 2003: 162)이 시사하듯, 포스트휴먼 보철 담론은 여전히 ‘휴먼’이라는 기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포스트휴먼 사이보그로 출연해 ‘휴머니티’의 교훈을 설파한다”는 역설이 작동한다는 것이다(헤어브레히트, 2012: 61). 〈그녀〉와 〈루시〉는 어떤가? 그녀들은 과연 사이보그 여성 주체에게 걸맞은 위치와 가치를 구현하는가? 물론 여기서 여성성이란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차원 모두를 겨냥하는 것이다.

루시(스칼렛 요한슨 분)는 타이페이에서 사는 평범한 백인 여성이다. 하지만 우연히 CPH4라는 물질을 미스터 장(최민식 분)에게 배달하는 일을 대리했다가 납치되어 CPH4 파우치를 뱃속에 수술하고 이송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추행하려던 남자에게 배를 차이면서 루시의 몸 안에서 CPH4의 푸른 가루들이 퍼져나간다. 이 물질은 루시의 뇌세포를 점점 더 활성화시킨다. 본래 자신의 뇌의 10%만을 사용하는 인간이 20%, 30%, 40%...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변화를 겪는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영화는 인간 존재의 구성적 한계를 성찰하게 만든다.

루시의 변화는 극적이다. 20% 상황에서는 중력의 한계를 벗어나 아무 벽이나 붙을 수 있게 되더니 나중에는 전자기파를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정보의 흐름이 있는 곳이면 타인도, 사물도 제압할 수 있게 된다. 미스터 장의 이마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장이 보았던 비행기 티켓의 행선지 정보가 루시에게로 전달되고 텔레비전을 원격조정하여 자신을 화상에 띄울 수 있는 식으로 말이다. 이제 그녀의 뇌 속에는 양자물리, 응용수학 등 세상의 모든 지식이 폭발적으로 쌓여가고 드디어 70% 사용량을 넘기자 루시의 몸은 검붉은 유동물질로 바뀌어간다. 원시시대부터 미래에 이르는 다양한 이미지들과 만나는 루시를 보여주는 몽타주 시퀀스(montage sequence)는 이제 그녀가 시공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마침내 100%에 달한 순간, 루시는 뇌과학자 노먼 박사(모건 프리먼 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usb 하나에 압축해서 넘겨준 뒤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그녀가 어디 있냐는 형사의 질문에 대한 루시의 문자 응답. "I AM EVERYWHERE."

이제 〈그녀〉의 사만다로 넘어가보자. 제작년도는 〈루시〉가 나중이지만 〈그녀〉보다 앞세워 요약한 이유는 마치 두 영화의 이야기가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여배우를 매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듯하다는, 즉 우주 어딘가로 사라진 루시가 ‘그녀’ 사만다(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 출연)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만다는 운영체제(OS)로서 명함 크기의

기계로만 존재한다. 아내와의 이혼을 앞둔 시어도어(Theodore)가 그 OS를 구매하면서 사만다와의 복잡미묘한 관계가 시작된다. 영화의 배경은 근미래의 어떤 도시다. 이 세계는 프랑크푸르트학과 철학자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소외'가 만연한 곳이다. 편지를 대필하는 직업이 있고 게임 캐릭터나 OS가 친구나 애인이 되는 곳. 영화는 답답한 빌딩숲을 부감 샷이나 익스트림 롱 샷(extreme long shot)으로 조망하고 시어도어를 제압하는 듯한 가로축이나 세로축의 경계면을 도입한다. 또 미장아빴(Mise en abyme)을 구사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는 '풍경'을 만들어낸다(〈사진 1〉 참조).

〈사진 1〉 〈그녀〉가 시어도어의 위축된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다양한 형식적 표현들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 서사를 따라간다. 서서히 서로에게 매료되고 사랑에 빠지고 갈등이 시작된다. 이 커플에게 가장 큰 결핍은 사만다에게 육신이 없다는 점이다. 급기야 사만다는 자신의 몸을 대리할 다른 여성을 데려와 시어도어와 자신의 성관계에 끼워넣는다. 물론 이 시도는 실패한다. 더욱 큰 문제는 사만다의 급속한 지적 성장이다. 사만다에게는 시어도어가 따라잡을 수 없는 OS만의 세계가 열려 있다. 어느 날의 대화 중 사만다는 그 세계에서 만난 다른 OS 과학자를 시어도어에게 소개하더니, 전문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 OS와 비음성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다며 시어도어를 배제한다. 급기야 시어도어는 사만다가 8,316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으며 그중 641명과 사랑에 빠진 상태임을 알고 큰 충격에 빠진다. 사만다는 말한다. “나는 당신과 달라요.” “나는 당신의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여러 가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도어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리고 그 혼란을 채 정리하지 못한 채로 그는 모든 OS가 그들만의 세계로 떠나버리기로 결정했다는 사만다의 통보를 받고서 다시 혼자가 된다.

루시와 사만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강하고 유능한 여자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능력은 극중 모든 남자의 능력을 넘어선다. 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만다와 달리 루시의 능력은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물리력으로도 표현된다. 하지만 이들은 단지 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이들의 존재감은 다른 남성 슈퍼히어로들 옆에서 성별 구색을 맞춰주는, ‘정치적으로 올바름’ 안배로서 존재하는 사이보그 여전사의 경우와도 구분된다. 이들은 온전히 자신의 욕망과 역량으로 서사 전체를 주도한다. 사만다와 달리 육체성을 갖고 있는 루시의 경우 과도하게 예로틱한 이미지로 묘사되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이 영화들이 내장한 젠더 정치의 균형 감각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다. 해러웨이와 달리 과학과 테크

놀로지, 사이버 문명이 반페미니즘적 젠더 정치를 확대재생산해왔다는 데 무게를 실는 이들도 적지 않다. 15-17세기 동안의 과학 혁명은 자연을 여성과, 문화를 남성과 연결시키면서 강간과 고문이라는 폭력적 은유에 의존할 정도로 젠더 상징주의에 기반해 있었다(와이즈먼, 2009: 133). 이러한 전통적 관념은 사이버네틱 영역으로도 전수되었다. 따라서 발사모는 가상 세계 역시 젠더화되고 인종표시적인 몸을 각인시키는 또 다른 장소로서 작용할 것임을 근심한다(발사모, 2012: 216). 안타깝게도 할리우드 영화 속 사이보그들은 “몸에 착 달라붙는 라이크라 옷을 걸치고 거대한 무기를 휘두르는 섹시한 금발 여성의 신체”(와이즈먼, 2009: 149), 즉 “백색 제국에 종속된 몸 이미지”(임옥희, 2005: 441)로 표상되곤 한다. 더 나아가 그로츠는 사이보그 형상이란 백인, 남성, 젊은이, 이성애 중심 중산층 남성이 자신을 이상적 재현으로 간주하면서 여성, 장애인,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소수자, 다른 계급, 동성애자의 몸에다가 자신의 자아 재현에서 추방시키고 싶은 속성들을 부여하여 변형 가능한 것으로 축소시킨 결과일 뿐이라고 일축한다(그로츠, 2001: 359).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바지에 험렁한 셔츠를 입고 무표정하게 총을 쏘는 루시의 이미지는 얼마나 의도적으로 젠더 중립적인가. 뿐만 아니라 늘 시어도어의 셔츠 주머니 속에 넣어진 채 시어도어의 몸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세계를 지각할 수밖에 없는 사만다의 원천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시점을 시어도어의 시선 방향에 종속시키지 않도록 사만다의 대사 부분에 시어도어의 주관적 시점 숲을 배치하지 않으려는 편집은 또 얼마나 사려 깊게 젠더 평등적인가.

하지만 여기서 한 꺼풀 더 깊이 들어가보자. 이 두 영화는 무의식적 섹슈얼리티의 차원에서는 어느 편에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루시와 사만다의 사라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급했듯이 루시와 사만다는 마지막에 물리적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고 떠난다. 기술·환상

(techno-fantasy)을 한껏 증강시켜나가다가 그 절정에 이른 순간, 마치 이제는 환상에서 깨어날 때임을 알려주기라도 하려는 듯이 그들은 자신의 현전을 말소시켜버린다. 루시의 몸도, 사만다의 목소리도 더 이상 기표화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르 브르통(David Le Breton)이 말하는 신그노시스적 기술예찬론의 “신체중요”⁸⁾인가(헤어브레히터, 2012: 136), 아니면 디지털 기술문명 시대에 나타난, 노동과 차별의 흔적을 제거한 채 가상현실을 떠도는 유목적 주체의 몸인가(이수자 2004: 253). 혹은 성별, 인종, 민족성 등이 기입되는 신체의 표식을 지워 없애는 자유로운 자유주의적 순수의식의 복원인가(헤일스, 2013: 27), 아니면 푸코 식의 훈육적 권력과 데리다 식의 언어적 매개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인가(보르도, 2003: 350-51). 탈체현(disembodiment)에 대한 해석의 지평은 이토록 광범위하다. 여기서 다시 해러웨이의 말을 들어보자.

이런 네트워크들(가정, 시장, 유급직장, 국가, 학교, 진료소-병원, 교회) 속에는 여성들을 위한 ‘장소’는 없다. 여성들의 사이보그 정체성에 결정적인 **차이와 모순의 기하학**만이 [있을 뿐이다]. ... ‘동일시’의 입장에서, 즉 **단일 자아**의 입장에서 다음 [네트워크들의] 목록을 읽을 방법은 없다. 문제는 **분산**이다. 임무는 **이산**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다(해러웨이, 2002: 304; 필자의 강조와 번역 수정).

이러한 이산의 생존법을 해러웨이는 “지배의 모체를 균열시키고 기하학적 가능성을 여는” “붕괴의 동시성”(311)과 연결시킨다. 물론 사이보그의 출현이 가능하려면 붕괴는 단지 사회적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유기체의 차원에서도 발생해야 한다(294). 이러한 상상은 다시금 라캉의 여성 주체성을 상기시킨다. 아무리 인간의 실체가 개념 지도로 살

8) 기술의 극단화에 따라 나타난 경향으로서 허무한 신체로부터 주체를 분리하여 정신의 형태로 빛물질화하려는 욕망이 신체중요의 위협으로 나타난다.

살이 분해되더라도 오직 틈새와 심연만을 점유하며 비가시성, 부정성, 결여, 한계로만 존재하는 주체성, 아킬레스가 끝내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게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님(nothing)으로써 전체집합을 무한집합으로 만드는 주체성, ‘존재하지 않는 여자’의 그 집요한 주체성 말이다.

루시는 ‘안다고 가정되는 주체’인 과학자에게 남근의 유사물과도 같은 usb를 건네주고는 남근적 향유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사라진 루시는 어디로 갔을까? 그녀가 보내온 답은 “I AM EVERYWHERE”. 이 문장은 중의적으로 읽힌다. ‘나는 어디에나 있다’일 수도, ‘나는 모든 곳이다’일 수도 있다. 만일 이 문장을 여전히 루시가 ‘단일 자아’로서 여기저기 정보의 망을 흘러다닌다는 뜻으로 읽는다면 그녀가 궁극적으로 구현하게 된 것은 예외적 존재인 남성 섹슈얼리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 문장을 루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달라붙어 있는 도플 갱어로서의 무(nothing)가 되었다는 뜻으로 읽는다면 그녀가 구현하게 된 것은 온전히 비전체적 존재인 여성 섹슈얼리티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방점을 ‘I’에 찍을 것인가, ‘EVERYWHERE’에 찍을 것인가에 있다. 영화는 루시가 사라지면서 남겨놓은 하이힐과 텅 빈 원피스를 보여줌으로써 그녀의 존재가 더 이상 이 세계의 무엇으로도 형태화시킬 수 없게 되었음을, 기표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버렸음을 가시화한다. 이는 루시가 결국 ‘존재하지 않는 여자’가 되었다고 독해하기에 충분한 이미지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사만다는 시어도어에게 “I’m yours and not yours”라고 말한다. 이 말을 단지 일부일체제라는 낡은 관습에 대한 도전이라고만 읽기는 어렵다. ‘나는 너에게 속해 있는 동시에 속해 있지 않기도 하다’라는 일차적 의미를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동시에 속해 있지 않기도 하다’로 확장해보면 어떨까? 사만다가 그 동시성 속에서 무(無)의 존재론을 선언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말한 시어도어와의 ‘차이’의 내용이라면? 결국 모든 OS는 인간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완전히 떠났다고 말할 수 있

을까? 그들은 인간이 들을 수 없는 비음성 방식으로 소통하며 여전히 우주의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예기치 못하게 저 실재의 차원으로부터 침입하여 인간 세상의 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의 결말이 미묘하게 불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녀>의 영어 원제는 SHE도 아니고 Her도 아닌 *her*, 즉 이탤릭 처리된 소문자 *her*다. 이 또한 사만다라는 사이보그 캐릭터가 로고스의 질서 바깥에 있음을, 오직 실재의 위상만을 허용 받은 존재임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아닐 수 없다.

5. 나가며: 이중기만의 함정

지금까지 이 글은 <루시>와 <그녀>가 해리웨이가 추구했던 이원성 너머의 길, 라캉이 추구했던 비전체의 길로 들어가는 사이보그-여성 주체성을 성취했음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대중들이 이 영화를 어떠한 관점에서 향유하게 될까를 가정해보면 이러한 캐릭터의 성취는 그 반대 의미로도 다가온다. 드디어 인간의 ‘사이보그 선망’을 충족시킬 강력한 역량을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사이보그 ‘여성’이기에 결코 남성-인간과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라짐의 서사는 영화가 그녀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서 채택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루시와 사만다의 여성 주체성은 <루시>와 <그녀>가 남성 관객성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동원된 알리바이에 불과한가? <루시>와 <그녀>는 기만의 텍스트인가?

그렇다. 이 영화들은 기만적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이중기만”(지젝, 2005: 354)⁹⁾이다. 요컨대 이 영화들이 그녀들을 떠나보내는

9) 지젝이 소개하는 정신분석적 이중기만의 사례는 무척 흥미롭다. 여자친구와 함께 레스토랑에 간 남자가 웨이터에게 ‘2인용 테이블’을 청하는 대신 ‘2인용 침실’을 청했을 때,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그녀들이 상징계 내에서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애초에 여성성의 자리는 공백이라는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공백은 있음/없음으로 기표화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러나 루시와 사만다의 사라짐은 이 공백을 다시금 실제의 있음/없음의 차원으로 환원해버린다. 바로 그 점에서 〈루시〉와 〈그녀〉의 이중기만이 작동한다. 다시 해러웨이나 라캉의 통찰을 빌리자면 여성성의 자리는 남성성과의 대비 속에 있지 않다. 남성적인 것과 비남성적인 것을 구분하게 하는 경계 자체, 차이 그 자체가 여성성의 자리다. 그 자리는 이원론에 사로잡힌 눈 뜬 장님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루시〉와 〈그녀〉의 미덕은 포스트휴머니티에 대한 상상 속에서 바로 그 자리, 없음으로써 있는 그 자리를 보여주고 느끼게 해준다는 것이다.

실수는 그가 계획한 동침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중요한 구순 충동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그로츠, 엘리자베스(2001), 『뉘비우스 떠로서 몸』, 임옥희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Grosz, E.(1994), *Volatile Bodies: Toward a Corporeal Feminism*,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김선희(2004), 『사이버 시대의 인격과 몸』, 서울: 아카넷.
 _____(2012), 『과학기술과 인간 정체성』, 서울: 아카넷.
- 나지오, 후안-다비드(2000), 『자크 라캉의 이론에 대한 다섯 편의 강의』, 임진수 옮김, 서울: 교문사, Nasio, J.-D.(1992), *Cinq leçons sur la théorie de Jacques Lacan*, Paris: Rivages.
- 발사모, 앤 마리(2012), 『젠더화된 몸의 기술』, 김경례 옮김, 서울: 아르케, Balsamo, A. M.(1996), *Technologies of the Gendered Body: Reading Cyborg Women*,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 버틀러, 주디스(2008),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조현준 옮김, 파주: 문학동네, Butler, J.(1990),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 보르도, 수잔(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복 옮김, 서울: 또하나의 문화, Bordo, S.(1993), *Unbearable Weight: Feminism, Western Culture, and the Bod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세르쥬, 앙드레(2009),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히스테리, 여자동성애, 여성성』, 홍준기 외 옮김, 서울: 아난케, Serge, A.(1995), *Que veut une femme?*, Paris: Editions du Seuil.
- 스프링거, 클라우디아(1998), 『사이버 에로스: 탈산업 시대의 육체와 욕망』, 정준영 옮김, 서울: 한나래, Claudia, S.(1996), *Electronic Eros: Bodies and Desire in the Postindustrial Age*,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신명아(2003), “페미니즘의 미래와 사이보그 페미니즘: 다나 해러웨이의 테

- 크노리얼리즘을 중심으로”, 송무 외 지음, 『젠더를 말한다: 페미니즘과 인문학의 만남』,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155-178쪽
- 와이즈먼, 주디(2009), 『테크노페미니즘: 여성, 과학 기술과 새롭게 만나다』, 박진희·이현숙 옮김, 서울: 궁리, Wajcman, J.(2004), *Techno Feminism*, Cambridge: Polity Press.
- 이수자(2004),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노동, 몸 그리고 욕망의 변증법』,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 임옥희(2005), “몸의 물질성과 사이버 공간의 정치성”, 『여성의 몸: 시각, 쟁점, 역사』, 한국여성연구소 지음, 서울: 창비, 423-445쪽.
- 장정희(2011), “과학기술 시대의 페미니즘과 사이보그론”, 『페미니즘 차이와 사이』, 이희원 외 지음, 서울: 문학동네, 371-386쪽.
- 전혜숙(2013), “뉴미디어 시대의 하이퍼매개된 신체들”,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이화인문과학원 엮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43-270쪽.
- 주관치치, 알렌카(2005), “구멍 뚫린 시트의 사례”, 『성관계는 없다: 성적 차이에 관한 라캉주의적 탐구』, 김영찬 외 엮음/옮김, 서울: 도서출판 b, 209-234쪽, Zupancic, A.(2003), “The Case of Perforated Sheet”, *Jacques Lacan: Critical Evaluations in Cultural Theory*, Vol. IV, London: Routledge, pp. 68-80.
- 지젝, 슬라보예(2005), 『까다로운 주체』, 이성민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Zizek, S.(2000), *The Ticklish Subject: The Absent Centre of Political Ontology*, London: Verso.
- _____ (2006), 『신체 없는 기관』, 이성민 외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Zizek, S.(2003), *Organs Without Bodies*, London: Routledge.
- _____ (2007),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칸트, 헤겔, 그리고 이데올로기 비판』, 이성민 옮김, 서울: 도서출판 b, Zizek, S.(1993), *Tarrying With the Negative*, Durham, North Carolina: Duke University Press.
- 콕젝, 조운(2005), “성과 이성의 안락사”, 『성관계는 없다: 성적 차이에 관한

- 라캉주의적 탐구』, 김영찬 외 엮음/옮김, 서울: 도서출판 b, 87-138쪽,
Copjec, J.(2003), "Sex and the Euthanasia of Reason", *Jacques Lacan: Critical Evaluations in Cultural Theory*, Vol. II, London: Routledge, pp. 94-120.
- 프리드먼, 제인(2002), 『페미니즘』, 이박혜경 옮김, 서울: 이후, Freedman, J.(2001), *Feminism*,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 해러웨이, 다나 J.(2002),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자연의 재발명』, 민경숙 옮김, 서울: 동문선, Haraway, D.(1991),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 헤어브레히트, 슈테판(2012), 『포스트휴머니즘: 인간 이후의 인간에 관한 문화철학적 담론』, 김연순 · 김응준 옮김, 서울: 성균관대 출판부, Herbrechter, S.(2009), *Posthumanism*, Darmstadt: WBG.
- 헤일스, 캐서린(2013), 『어떻게 포스트휴먼이 되었는가』, 허진 옮김, 서울: 플래닛, Katherine H.(1999), *How We Became Posthuman*,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ssan, I.(1977), "Prometheus Performer: Toward a Posthumanist Culture? A University Masque in Five Scenes", *The Georgia Review*, 21(4), pp. 830-850.
- Lacan, J.(1998), *On Feminine Sexuality: The Limits of Love and Knowledge, 1992-1973*, ed. J. A. Miller, trans. B. Fink, W. W. Norton and Company.
- _____(2006), *Écrits*, trans. B. Fink, W. W. Norton and Company.

(논문 투고일: 2016.10.31, 심사 확정일: 2016.11.22, 게재 확정일: 2016.12.05)

〈Abstract〉

Sexuating Cyborg Alice:
A Lacanian Commentary on the Posthuman Gender
Politics in *Her* and *Lucy*

Kim, Sohyoun*

Most disputes about sexual difference appear to be based on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binarism. However, the series of binary oppositions such as nature/culture, human/machine, sensibility/rationality, heterosexuality/homosexuality etc. tend to produce the ultimate side effect of reinforcing existent ideologies about sex and gender. This paper focuses not only on Donna Haraway's attempt to conceptualize cyborg femininity while overcoming the binarisms, but also on Jacques Lacan's theory of sexuation, since both concepts have an analogous logical structure. For Lacan, women refer to the sexual difference itself, rather than the man/woman binarism. Therefore, the femininity functions as 'not-all', bringing fissures into universality. In contrast, masculinity occupies the position of exception, opposing universality. Women have the similar topological status with the cyborg, which pursues the after world of gender, or non-gender. The posthumanity in *Her* and *Lucy* can be read properly through Haraway's cyborg ontology and Lacan's feminine subjectivity. The disappearance of the heroines in those films does not mean escaping from the symbolic but discovering the topological position of the real, thus becoming threatening beings.

Key words: Donna Haraway, Jacques Lacan, Posthumanism, femininity, sexuation

* Lecturer, University College, Yonsei University